

한국인의 정서적 발달과업 탐색: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중심으로

황 매 향¹⁾

경인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 생애에 걸친 정서적 발달과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먼저, 58명의 교사, 예비교사, 일반인 및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11개의 서로 다른 연령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을 자유응답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회의를 거쳐 수집된 경험들을 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정서적 발달과업의 목록으로 변환하였다. 이를 기초로 정서적 발달과업 설문지를 제작하고, 194명의 성인남녀에게 제시된 항목의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각 연령집단별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1개 연령집단에 걸쳐 모두 314개 정서적 발달과업이 추출되었고,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발달과업 90개를 최종 발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추출된 정서적 발달과업의 특징과 Havighurst와 김종서 등이 제시한 발달과업과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 발달과업, 부정적 정서경험, 긍정적 정서경험, 전생애 발달

1) 교신저자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E-mail : maehyang@ginue.ac.kr)

I. 서 론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이 전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발달의 과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 특수교육, 상담, 심리치료, 사회사업 등 인간의 발달을 촉진하고 조력하는 서비스에서 정서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상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정신분석도 개인의 정서적 곤란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에서 출발하였고, 이후 어떤 이론이나 접근에서도 정서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최근에서는 부정적 정서의 개선에만 초점을 두던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 정서를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을 돕는 긍정심리학의 새로운 관점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조력전문가들은 개인의 부정적·긍정적 정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및 조력전문 관련 전공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정서에 대해 따로 가르치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각 전공의 선수과목에 해당하는 성격이론이나 발달이론을 통해 정서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는 문화적인 영향이 많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구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조력전문 인력의 양성체제와 배출되는 전문 인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반성의 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조력서비스의 한국 토착화 노력의 일

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전문가들의 정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정서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어린 시절부터의 정서의 발달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정서의 발달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서의 분화, 정서의 표현,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서조절 등이 정서발달의 주요한 과업들인데, 이러한 과업은 비교적 생애초기에 이루어지고 문화적 보편성도 확보되어 있다. 이후 과정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각 발달단계에서 어떠한 정서적 경험들이 중요한가 정서발달 과업의 내용이 된다. 정서발달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서의 발달

발달심리학에서 제안하는 정서의 발달과정을 보면, 정서의 분화와 표현, 정서에 대한 이해, 정서조절의 순서로 발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은 학령기 이전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유경·민경환, 2003; Izard, 1982; 1993). 즉, 정서와 관련된 발달은 생애 초기에 집중되고, 이후 시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서와 정서활용 능력을 정교화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정서의 분화 및 표현의 발달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정서는 태어날 때부

터 가지고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다 다양한 정서로 분화된다.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 흥분상태에서 긍정적인 정서인 유쾌와 부정적인 정서인 불쾌가 분화되고, 유쾌한 정서로부터 행복, 만족, 애정 등의 정서가 불쾌한 정서로부터 분노, 혐오, 공포 등의 정서가 분화된다(Shaver et al., 1987). Izard(1971)는 호기심과 혐오감은 출생 시부터 존재하고, 화, 놀람, 슬픔은 3~4개월, 공포는 5~7개월, 수치심과 수줍음은 6~8개월에 나타나고, 첫 돌이 지나면서 당황, 수치심, 죄책감, 질투, 자부심과 같은 이차정서 또는 복합정서가 분화되기 시작하여, 생후 2년이 지나면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서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성진(2005)은 우리나라에서 1975년에 태어난 유아의 생후 18개월까지의 정서발달을 종단적으로 관찰한 결과, 약 15개월까지 관찰가능한 기본정서는 낮가리기, 불안, 희망, 애정, 만족, 환희, 공포, 슬픔, 분노, 질투, 혐오감 등 11개 정도의 기본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생애초기 기본정서의 발달을 확인시켜 준다.

정서 이해의 발달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은 생후 6개월 경에도 가능하지만, 유아기가 되면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정서 이해의 발달과정을 보면, 타인의 정서에 대한 구분, 인식, 추론 및 공감,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내적 정보와 외적 정보를 통합한 정서 추론, 정서 경험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 혼합정서에 대한 이해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 시기

의 정서 이해 발달에 대해 유경과 민경환(2003)은 다음과 같이 경험적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4~5세 아동들은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기분이 슬픈지, 기쁜지,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고(Boone & Cunningham, 1998), 기분이 외현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내적 상태에 의해서도 달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Fabes, Eisenberg, Nyman, & Michealieu, 1991), 실제 경험하는 정서가 실제로 표현되는 표면 정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김혜리, 2000; Harris, 1989). 학령기 아동들은 정서를 해석하는데 내적인 정보와 상황적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되며,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들마다 상이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며(Gnepp & Klayman, 1992), 6-10세 아동들은 한 사람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유경·민경환, 2000; Brown & Dunn, 1996). 정서 이해 능력은 성인 기에도 계속 발달한다. Labouvie-Vief 등(1989)의 연구에서는 사춘기 이전부터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정서 이해 능력이 증진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개인의 자아발달 수준과 연관이 있어 자아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성숙된 방식으로 정서적 경험을 표현함을 확인하였다(정옥분, 2006).

정서 조절의 발달

정서 조절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된다. 12개월 정도부터 불쾌한 사건이나 사람을 피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유발을 감소시키는 책략을 발달시키고, 28

개월이 되면 부정적인 정서를 숨길 줄 알게 되고, 20개월에는 넘어졌을 때 어머니가 있을 때만 울며, 3세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숨긴다(정옥분, 2006).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3세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교화되는데, 정서를 숨기거나 정서표현 규칙을 따르게 된다. 6세부터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내적 기준을 더 의식하게 되고 자기조절 전략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Shaffer, 2002). 정서 조절 가능성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본 유경과 민경환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세의 경우에는 부적 정서가 조절 가능하다고 반응한 경우가 응답자의 14.3%뿐이었고, 4세 아동들은 정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들이 제시한 정서 조절 전략은 실질적인 조절 전략이 아니었다; 5세의 경우 부적 정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아동들 대부분은 나름의 정서 조절 방안을 보고했으며, 상황 되돌리기와 같은 반응은 없었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을 종료하는 시도를 하겠다는 반응도 소수의 아동에게서 나타났다. 좌절에 대한 참을성이나 만족지연 능력 역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허수경과 이경남(1996)은 우리나라 4~8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만족지연시간의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지연시간도 길어짐을 확인하였다(정옥분(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서 조절 능력은 전생애를 통해 계속 발달하고 변화해 나간다. 김민희와 민경환(2004)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년기 정서 조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적 재해석 양식과

회피/분산 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지지추구적 양식과 능동적 양식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서 발달과업

발달과업은 인간이 주어진 사회에서 성숙과 학습의 가능성을 가지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우고 성취해야 할 일들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Havighurst(1953)는 인간이 남들에게 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발달과업이라고 불렀다. 발달 과업은 특정한 시기에 기대되는 행동 과업으로 질서와 계열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발달 단계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준다. Havighurst는 인간발달을 영아기 및 유아기(0-5세), 아동기(6-12세), 청년기(12-18세), 성년초기(19-29세), 중년기(30-55세), 노년기(55세 이후)로 나누고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발달과업을 6-10개 항목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이후 발달과업은 발달의 각 영역별로 제안되기 시작하였는데, 정서적 발달은 그 대표적 영역 중 하나이다.

Havighurst의 발달과업

Havighurst(1953)가 제안한 발달과업 가운데 정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정서적 측면만이 아니라 다른 발달영역과 교차되는 경우가 많다: ① 유아기(0-6세): 자신을 부모, 동기 및 타인과 정서적으로 관련 맺기; ② 아동기(6-12세): 동년배와의 친교 능력, 인격적 독립의 성숙; ③ 청소년(12-18세): 부모

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 ④ 청년기(18-30세): 배우자 선정, 배우자와의 동거생활 능력, 육아 능력; ⑤ 중년기(30-60세): 배우자와의 인격적 관계 유지, 중년기의 생리적 변화 수용과 적응; ⑥ 노년기(60세 이후): 배우자 사망에 적응 및 죽음 준비,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 형성.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발달과업

김종서 등(1982)는 평생교육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인의 발달과업을 제안하였다. Havighurst(1948)의 발달과업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한국인에게 기대되는 발달과업의 내용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발달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청년전기, 청년후기, 성인전기, 성인후기, 노년기의 7단계로 확대하고, 평생교육체제에 맞게 발달과업의 영역을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발달과업의 내용도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학교수, 심리학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유아교육 전문가 29명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김종서 등이 제안한 발달과업 중 정의적 영역의 발달과업이 정서적 발달과 가장 유사한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아기(0-5, 6세)

-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기
-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태도를 배우기
- 즐겁게 노래 부르기
-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을 만들기

- 혼자서도 지루해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놀 수 있기
- 어른의 지속적인 보호 없이도 이웃에 나가 잘 놀기
-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
- 어른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인사할 줄 알기
- 다양한 감정(사랑, 선망, 좌절, 증오, 시기, 질투)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② 아동기(6-11, 12세)

- 옷을 스스로 단정히 입기
- 소년은 소년답게, 소녀는 소녀다운 역할과 행동배우기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관습 기르기
- 양심, 도덕성, 가치판단의 기준을 발달시키기
- 간단한 악기다루기
- 그림을 그리거나 공작품을 만들고 감상하기
- 동시, 동화, 위인전 등 아동문학작품읽기
- 놀 때는 잘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태도 기르기
-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습관 기르기
-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기

③ 청년전기(12-18, 19세)

-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발전시키기
-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 성적 충동이나 감정을 통제하기
- 문학 및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기
-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하기
- 일생을 살아갈 지침이 될 가치를 획득하기

④ 청년후기(19-24, 25세)

-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감 갖기
-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 건전한 생활관 확립하기
- 전통적인 가치관을 생활에 조화시키기
-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 능력과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태도 기르기

⑤ 성인전기(25-35세)

- 배우자와 원만한 인간관계 가지기
- 자녀를 성공적으로 출산하고 잘 기르기
-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만족스럽고 보람 있게 수행하기
- 직장이나 단체생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맺기
- 자녀들의 필요를 잘 헤아려 부모로서 역할 다하기
- 진지하고 풍부한 사회생활 영위하기

⑥ 성인후기(35-60세)

- 배우자 및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 유지하기
-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고 융화하기
- 취미를 살려 여가를 유용하기 보내기
- 젊은 층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기

⑦ 노년기(60세 이후)

-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 유지하기
-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 정년퇴직과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 찾기
- 배우자 사망 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정서영역의 발달과업으로 제안된 내용들에는 정서적 경험을 촉진하는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서부분의 발달만이 아니라 태도나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서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달과업을 보다 세분화한 김중서 등(1982)이 제안한 내용 역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기’, ‘성적 충동이나 감정을 통제하기’, ‘즐겁게 노래 부르기’, ‘그림을 그리거나 공작품을 만들고 감상하기’,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만족스럽고 보람 있게 수행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 및 조력전문가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각 연령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정서적 발달과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수집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은 생애발달단계별 정서발달 과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은 생애발달단계별 정서발달 과업 항목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II. 연구방법

1. 예비조사

연구대상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예비조사 설문지를 전문가(교육학 박사), 현직교사, 예비교사, 40대 일반인(학부모집단으로 가정) 등에 골고루 실시하였다. 참여한 전문가는 4명, 현직교사는 6명, 예비교사는 16명(4팀), 일반인 32명(11팀)이고, 예비교사와 일반인의 경우 4명 또는 3명이 한 팀이 되어 설문에 응하였다.

예비조사 설문지 제작

예비조사 설문지는 자유응답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각 발달시기의 중요한 정서경험에 관련된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 항목을 수집하였다. 전생애적 발달과업을 포함하기 위해 발달의 단계를 유치원 이전, 유치원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의 11단계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이론들보다 단계의 수가 세분화되어 있고, 기존의 이론들이 발달단계를 연령을 기준으로만 분류했던 데 비해 인생 초기의 발달단계를 학령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일반인들로부터 보다 풍부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보다 익숙한 단계구분을 적용하고, 세부 단계별로 발달과업에 대한 의견을 풍부하게 적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연령단계의 구분은 전통적인 발달이론에서 제안한 발달단계를 참고하되, 각 단계의 명칭을 우리나라의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서발달 영역의 과업 항목을 좀 더 넓은 범위의 연령에 대하여 세분화시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질문의 내용은 “각 연령대에 중요하게 겪게 되는 일과 그에 대한 감정이 무엇이고, 성공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을 모두 적되 각각 세 가지 이상 적어주십시오.” 였고,

표 1. 예비조사 설문지의 양식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중요한 경험과 감정	필요한 능력	중요한 경험과 감정	필요한 능력
유치원 이전				
유치원 시기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표 1과 같은 양식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단계별 정서적 발달과업에 대한 응답 가운데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각 연령단계별로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나누어 항목을 추출하였다. 각 연령단계별 추출된 항목의 수는 표 2와 같다.

이들 예비조사 결과의 내용을 연령별로 정리하여,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어의가 불분명한 것을 명료화하였으며, 정서발달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을 삭제하여 11개의 연령대별로 항목을 정리하였다. 항목 결정과정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3명의 교육상담 전공 교수와 4명의 교육심리전공 교수가 공동

으로 작업하였다. 예비조사응답에 대한 항목을 정리한 결과 유치원 이전 26개, 유치원 32개, 초등학교 저학년 25개, 초등학교 고학년 57개, 중학교 41개, 고등학교 25개, 20대 22개, 30대 22개, 40대 21개, 50대 22개, 60대 이후 21개였다.

2. 본조사

연구대상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전국의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성인교육 기관, 종교기관, 친목모임, 직장 등에서 194명에게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194명 중 남자가 83명(42.8%), 여자가 111명(57.2%)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다(표 3). 분석대상의 연령분포는 19세에서 65세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35.6세였다(표 4). 분석대상의 학력분포를

표 2.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된 단계별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 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과	
	감정	감정
유치원 이전	55	51
유치원 시기	59	54
초등 저학년	64	53
초등 고학년	60	56
중학교	56	74
고등학교	53	62
20대	51	51
30대	50	50
40대	57	61
50대	39	44
60대 이후	47	37

표 3. 설문대상자 성별 분포

구분	빈도	비율(%)
남자	83	42.8
여자	111	57.2
전체	194	100.0

표 4. 설문대상자 연령대별 분포

구분	빈도	비율(%)
20대 이하	51	26.3
30대	77	39.7
40대	53	27.3
50대 이상	13	6.7
전체	194	100.0

보면, 대졸이 72명(3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고졸 54명(27.8%)으로 나

타났다(표 5). 분석대상의 직업분포를 정리한 것은 표 6과 같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표집하였다.

표 5. 설문대상자 학력 분포

구분	빈도	비율(%)
고졸이하	5	2.6
고졸	54	27.8
전문대졸	15	7.7
대졸	72	37.1
석사과정	22	11.3
석사	17	8.8
박사과정	4	2.1
박사	5	2.6
전체	194	100.0

표 6. 설문대상자 직업 분포

구분	빈도	비율(%)
건설업	4	2.1
공무원	14	7.2
교사	45	23.2
교수	2	1.0
군인	2	1.0
법조인	1	.5
성직자	0	.0
운수업	0	.0
의사	1	.5
판매업	4	2.1
학생	33	17.0
회사원	38	19.6
기타	50	25.8
전체	194	100.0

설문지

예비조사에서 추출한 각 연령대별 중요한 정서적 경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성·연령·학력·직업에 대한 인구통계적 정보 항목, 각 연령대별 발달과업 항목, 각 연령대별로 기타 항목을 적을 수 있는 공란으로 구성하였다. 발달과업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은 ○○○ 시기(만○~○세)의 정서발달 관련 항목들입니다. 여러분은 ○○○ 시기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로서 다음 각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목별로 해당 평가사항에 “√”표 하십시오.” 발달과업 및 기타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로 제작하였다.

설문지 실시 및 분석

설문지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전국의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성인교육 기관, 종교기관, 친목모임, 직장 등에서 194명에게 실시하였다. 실시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78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인들이 정서적 발달에서 각 연령대별로 이루어야 할 과업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추출된 발달과업 항목들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평균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조사 결과 예비조사 결과 추출한 발달과업의 각 항목에 대해 일반인들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가 보통(3점)’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응답 평균은 모든 연령의 발달과업 항목이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7).

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연령대별 정서적 발달과업을 결정하기 위해 각 연령대별 각 발달과업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발달과업을 선정하기 보다는 문항평균 점수와 응답내용(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균 3점이 안 되는 항목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고자 했다. 3점 이상 즉 일반인들이 발달과업의 중요도로 볼 때 보

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항목들을 일차적인 발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4점 이상 즉,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항목을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발달과업으로 명명하였다.

1. 유치원 이전 시기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8을 보면, 유치원이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26개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2)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3) 부모와 신체적으로 접촉한다, 1) 부모와 함께 논다, 6) 가족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10) 형제들과 상호작용한다, 23) 친구를 사귀다, 19) 언어를 습득한다” 등 7개가 추출되었다. 유치원 이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 모두가 발달과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도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7개나 추출되었다. 중요한 발달과업의 내용의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 이 시기에 정서적 발달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치원 시기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9를 보면, 유치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32개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2)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17) 어떤 것을 잘하여 칭찬받는다, 27) 친구들과 즐겁게 논다, 30) 친구들과 나누어 갖는다, 22) 옳고 그름을 안다, 11) 상과 벌

표 7. 각 연령대별 발달과업의 기술통계치

연령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경도	침도
유치원 이전	170	3.8	0.42	0.187	0.038
초등 저학년	184	3.6	0.50	0.126	-0.228
초등 고학년	174	3.6	0.54	-0.254	0.328
중학교	174	3.7	0.48	0.165	0.079
고등학교	183	3.8	0.54	-0.149	-0.133
20대	189	3.9	0.43	0.129	-0.146
30대	180	3.9	0.51	-0.375	0.112
40대	183	4.0	0.51	-0.590	0.227
50대	184	4.0	0.55	-0.710	0.645
60대이상	179	4.0	0.55	-0.745	0.628

표 8. 유치원 이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2)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194	1	4.78	0.472
3) 부모와 신체적으로 접촉한다	193	2	4.64	0.542
1) 부모와 함께 논다	194	3	4.60	0.542
6) 가족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189	4	4.58	0.627
10) 형제들과 상호작용한다	194	5	4.25	0.662
23) 친구를 사귀다	193	6	4.22	0.705
19) 언어를 습득한다	194	7	4.10	0.792
13)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다	193	8	3.88	0.851
18) 어떤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	192	9	3.86	0.839
9) 동생이 태어난다	192	10	3.85	0.761
16) 대소변을 가린다	194	11	3.83	0.862
17) 걸을 수 있게 된다	193	12	3.83	0.876
14) 물리적 안전 욕구를 충족한다	191	13	3.82	0.846
4) 부모로부터 거절당한다	193	14	3.74	1.117
5) 부모에게 의지한다	192	15	3.71	0.837
22) 마음껏 낙서를 한다(난화를 그린다)	193	16	3.70	0.948
20) 내 것을 갖는다	192	17	3.63	0.776
15) 꾸중을 듣는다	193	18	3.56	0.834
12)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과 만난다	193	19	3.55	0.906
8) 엄마와 떨어져 시간을 보낸다	194	20	3.51	1.112
24) 친구와 다투거나 친구로부터 고립된다	192	21	3.43	1.021
11) 미아가 되거나 사고를 경험한다	192	22	3.40	1.315
25) 옷장이나 부엌에서 물건을 꺼내본다	193	23	3.32	0.823
26) 병치레를 한다	192	24	3.24	0.985
21) 남의 것을 탐낸다	193	25	3.14	0.982
7)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는다	194	26	3.01	1.149

을 받아본다, 1) 가정과 외부세계의 차이를 경험한다, 23) 옷입기, 밥먹기 등을 혼자서 한다” 등 8개가 추출되었다. 유치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 모두가 발달과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도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8개가 추출되었다.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에서

표 9. 유치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2)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194	1	4.70	0.492
17) 어떤 것을 잘하여 칭찬받는다	194	2	4.34	0.665
27) 친구들과 즐겁게 논다	193	3	4.29	0.721
30) 친구들과 나누어 갖는다	193	4	4.13	0.716
22) 옳고 그름을 안다	194	5	4.06	0.803
11) 상과 벌을 받아본다	193	6	4.04	0.706
1) 가정과 외부세계의 차이를 경험한다	194	7	4.01	0.713
23) 옷입기, 밥먹기 등을 혼자서 한다	194	8	4.01	0.772
19) 단체생활을 경험한다	194	9	3.96	0.774
25) 호기심에서 어떤 것을 한다	194	10	3.95	0.771
31) 학예회나 발표회에 참가한다	190	11	3.86	0.736
15) 글자와 숫자를 학습한다	194	12	3.86	0.825
16)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다	194	13	3.82	0.810
4) 동생이 태어난다	192	14	3.76	0.769
14) 내 것이 생긴다	193	15	3.72	0.696
32) 어떤 것에서 실패한다	190	16	3.66	0.880
7) 집을 떠나본다	193	17	3.65	0.822
6) 친지집을 방문한다	194	18	3.60	0.797
9) 다른 어른, 부모, 선생님께 혼난다	194	19	3.57	0.813
13)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194	20	3.55	0.802
28) 친구들과로부터 거부당한다	193	21	3.51	1.169
8) 나만의 개인공간에서 논다	193	22	3.48	0.890
24) 선물을 받는다	193	23	3.43	0.808
3) 부모로부터 학대당한다	193	24	3.41	1.656
20) 급식 때 싫어하는 반찬이 나온다	193	25	3.41	0.825
5) 형제들과 비교당한다	191	26	3.39	1.230
12) 놀이기구나 장난감을 빼앗긴다	194	27	3.37	0.758
21) 도덕규범에 어긋하는 행동을 한다	192	28	3.35	0.926
10)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모습을 본다	194	29	3.35	0.815
18) 규칙에 얽매인다	194	30	3.30	0.951
29) 친구를 괴롭히고 때린다	193	31	3.20	1.328
26) 편애하는 선생님과 지낸다	194	32	3.14	1.127

는 친구나 규칙 등 아동이 외부세계와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추가되었다.

목의 우선 순위

표 10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24개가 제시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2) 부모와

3.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

표 10. 초등 저학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2) 부모와 교사로 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191	1	4.60	0.523
1) 가족과 유대감을 느낀다	191	2	4.46	0.568
23) 선생님을 동경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다	191	3	4.34	0.644
22)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191	4	4.28	0.735
6) 주어진 과제를 성취한다	190	5	4.23	0.734
17) 수업시간에 발표를 한다	191	6	4.09	0.716
18) 학예회나 발표회에 참가한다	190	7	4.05	0.722
15) 준비물을 스스로 챙긴다	190	8	3.91	0.761
12) 여가, 취미, 예체능 기술 등을 배운다	191	9	3.85	0.816
4) “꼴다”는 대접을 받는다	191	10	3.79	0.731
3) 다른 어른, 부모, 선생님께 혼난다	191	11	3.77	0.779
20) 본격적인 사회를 경험한다	191	12	3.60	1.005
16) 시험을 본다	191	13	3.57	0.830
10) 형제들과 비교당한다	190	14	3.51	1.190
14) 용돈을 받기 시작한다	191	15	3.47	0.793
21)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다	190	16	3.45	1.427
9) 다른 사람과 비교당한다	190	17	3.38	1.192
19) 또래나 선배에게 돈을 빼앗긴다	191	18	3.25	1.297
24) 선생님이 편애한다	191	19	3.20	1.296
25) 급식 때 싫어하는 반찬이 나온다	191	20	3.18	0.888
7) 공부를 못한다	191	21	3.17	0.898
11) 싸움에서 크게 진다	191	22	3.15	1.048
13)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에 몰두한다	191	23	3.10	1.105
5) 부모의 허락없이 친구가 시키는대로 한다	191	24	3.04	1.126

교사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1) 가족과 유대감을 느낀다, 23) 선생님을 동경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다, 22)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6) 주어진 과제를 성취한다, 17) 수업시간에 발표를 한다, 18) 학예회나 발표회에 참가한다” 등 7개가 추출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 25개 중 하나를 제외한 24개 모두가 발달과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도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7개가 추출되었다. 7개 주요발달과업이 내용이 학교와 성취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1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37개가 제시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1) 부모와 편안하게 대화한다, 26)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14)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다, 15) 단체활동에 참여한다(수련회, 캠프 등), 17) 학습과제를 성취한다, 24) 선생님과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20) 사춘기를 겪는다”가 추출되었다. 본 조사 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 38개 중 하나를 제외한 37개로 확인되었고, 중요한 것으로 7개가 추출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중요한 정서적 발달과업의 항목 수 뿐 아니라 범위도 넓어지면서, 중요한 발달과업의 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5. 중학교 시기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2를 보면, 중학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41개가 제시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1) 부모와 원만하게 대화한다, 11)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긴다, 5)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15) 사춘기를 겪는다, 36) 학업을 통해 성취감을 맞본다, 14) 2차 성장을 경험한다, 19)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 26)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한다” 등 8개가 추출되었다. 중학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은 41개가 모두 발달과업으로 추출되었고, 이것은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발달과업의 항목 수로 중학교 시기의 특징이 드러난 것이라고 예상된다.

6. 고등학교 시기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3을 보면, 고등학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25개가 제시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14) 일생을 함께 할 친구를 사귀, 1)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음, 4) 학업에 대한 몰두와 성취, 25) 자신의 존재가치 인식, 7) 목표달성의 성공과 실패, 6) 대학입학의 성공과 실패” 등 6개가 추출되었다. 고등학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은 조사지에 제시된 25개가 모두 발달과업으로 추출되었고, 목표달성 및 대학입학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포함된 것은 고등학교 시기의 특징이다.

표 11. 초등 고학년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부모와 편안하게 대화한다	191	1	4.45	0.604
26)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189	2	4.26	0.685
14)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다	190	3	4.21	0.766
15) 단체활동에 참여한다(수련회, 캠프 등)	190	4	4.14	0.736
17) 학습과제를 성취한다	191	5	4.05	0.786
24) 선생님과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191	6	4.05	0.777
20) 사춘기를 겪는다	191	7	4.00	0.801
31)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어진다	191	8	3.99	0.729
19) 2차 성징을 경험한다	190	9	3.99	0.787
5) 자신의 매력을 발견한다	191	10	3.94	0.799
37) 다양한 취미생활에 심취한다	189	11	3.89	0.792
21) 이성을 좋아한다	191	12	3.80	0.805
4)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한다	190	13	3.76	0.960
3) 부모의 불화 또는 이혼을 경험한다	190	14	3.76	1.538
6) 동생을 돌본다	191	15	3.72	0.728
12) 축구 등 운동을 한다	190	16	3.69	0.778
10) 다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알게 된다	189	17	3.67	0.812
8)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	191	18	3.60	0.767
27)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다	191	19	3.59	1.346
29) 친구들과 경쟁하고 갈등한다	191	20	3.57	0.954
2) 부모의 간섭을 싫어한다	190	21	3.56	0.845
36) 전학, 유학, 진학을 경험한다	190	22	3.55	0.917
9)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191	23	3.48	0.832
25) 숙제를 안하거나 잘못할 때 매를 맞는다	191	24	3.46	0.825
7) 형제들과 비교당한다	190	25	3.45	1.134
28) 친구를 가려서 사귀다	190	26	3.43	1.065
30) 친구와 이별한다	191	27	3.42	0.902
16) 단체 기합을 받는다	191	28	3.30	0.906
32) 또래나 선배에게 돈을 빼앗긴다	191	29	3.27	1.248
18) 공부를 못한다	190	30	3.26	1.024
35) 컴퓨터게임이나 오락에 몰두한다	191	31	3.24	1.096
33) 선생님이 편애한다	191	32	3.21	1.239
11) 연예인에 관심을 갖는다	190	33	3.17	0.863
22) 음란물을 본다	186	34	3.16	1.215
34) 선생님을 무서워한다	189	35	3.16	1.029
23) 첫사랑에 실패한다	191	36	3.01	1.005
13) 놀이문화가 없어 빈둥거린다	191	37	2.91	1.113

표 12. 중학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부모와 원만하게 대화한다	190	1	4.43	0.676
11)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긴다	190	2	4.27	0.656
5) 선생님께서로부터 인정받는다	190	3	4.21	0.701
15) 사춘기를 겪는다	188	4	4.07	0.682
36) 학업을 통해 성취감을 맛본다	190	5	4.06	0.695
14) 2차 성징을 경험한다	190	6	4.06	0.684
19)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	188	7	4.05	0.755
26)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한다	189	8	4.02	0.881
40) 어떤 것에서의 물일을 경험한다	190	9	3.94	0.862
31)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190	10	3.89	0.720
41)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다	189	11	3.87	0.880
9) 다 컸다는 인정을 받는다	189	12	3.80	0.699
27) 집단을 이끈다	190	13	3.79	0.834
4) 가정의 불화 또는 부모의 이혼을 겪는다	189	14	3.77	1.418
10)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	190	15	3.76	0.723
3) 부모 또는 어른들과 갈등한다	189	16	3.72	0.876
39)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190	17	3.72	0.758
16)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	188	18	3.67	0.832
13) 친구와 경쟁한다	190	19	3.65	0.820
32)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다	190	20	3.65	0.768
12)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다	190	21	3.64	1.289
2) 부모와 기성세대에 대해 반항한다	189	22	3.60	0.867
8) 외모 때문에 고민한다	189	23	3.60	0.836
6) 과목별로 다른 선생님을 만난다	189	24	3.58	0.785
23) 이성을 좋아한다	190	25	3.56	0.766
21) 어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190	26	3.54	0.781
37)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190	27	3.54	0.781
34) 상대평가, 등급 등을 경험한다	190	28	3.54	0.801
7) 형제나 친구와 비교 당한다	190	29	3.54	1.082
33) 위계질서를 경험한다	190	30	3.51	0.782
35)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190	31	3.49	0.996
24) 이성교제를 한다	189	32	3.49	0.854
17) 사회적 서열을 인식한다	190	33	3.45	0.858
20)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	189	34	3.43	1.083
25) 성역할에 충실한다	188	35	3.39	0.804
29)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다	190	36	3.36	1.216
28) 학교/학원 폭력, 성폭력 등을 일으킨다	190	37	3.33	1.433
18)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한다	189	38	3.31	1.093
38) 친구나 친지의 죽음 소식을 듣는다	188	39	3.29	1.025
30) 폭력서클에 가입한다	190	40	3.26	1.538
22) 연예인, 운동선수에 열광한다	190	41	3.18	0.850

표 13. 고등학교 시기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14) 일생을 함께 할 친구를 사귀	193	1	4.33	0.738
1)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음	193	2	4.33	0.655
4) 학업에 대한 몰두와 성취	194	3	4.24	0.718
25) 자신의 존재가치 인식	191	4	4.24	0.720
7) 목표달성의 성공과 실패	194	5	4.21	0.756
6) 대학입학의 성공과 실패	194	6	4.20	0.812
22)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194	7	3.91	0.859
2) 부모와의 갈등	194	8	3.87	1.034
3) 가족간의 불화	194	9	3.77	1.244
16) 친구들과의 여행	193	10	3.76	0.760
5) 학업에서의 실패(낮은 성적)	194	11	3.76	0.932
21) 이상과 현실의 차이 실감	192	12	3.75	0.880
13) 성폭력 가해 및 피해	194	13	3.75	1.469
17) 친구와의 갈등, 마찰, 실패	194	14	3.72	0.902
15) 친구들과의 경쟁	193	15	3.72	0.775
11) 이성교제	194	16	3.68	0.865
8) 선생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	193	17	3.65	0.783
12) 사랑에 대한 고민	193	18	3.63	0.875
10) 이성·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저지르는 실수	194	19	3.59	1.117
23) 사회적 규제	193	20	3.53	0.791
18) 체육대회, 축제, 스포츠 단체관람	193	21	3.48	0.848
24)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194	22	3.40	1.050
20) 인터넷 또는 컴퓨터 게임 중독	193	23	3.37	1.297
9) 선생님과 좋지 않은 관계	194	24	3.32	1.024
19) 음주나 흡연의 경험	194	25	3.22	1.151

7. 20대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4를 보면, 2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
는 22개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4) 결혼, 14) 취업 성공(입사), 5)
출산, 6) 배우자 가족에 대한 적응, 16) 직장생
활의 적응과 부적응, 1) 부모로부터의 독립, 3)
군입대” 등 7개가 추출되었다. 본 조사 제시된

표 14. 2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4) 결혼	194	1	4.42	0.773
14) 취업 성공(입사)	193	2	4.37	0.680
5) 출산	194	3	4.36	0.763
6) 배우자 가족에 대한 적응	194	4	4.23	0.782
16) 직장생활의 적응과 부적응	193	5	4.11	0.856
1) 부모로부터의 독립	194	6	4.07	0.824
3) 군입대	193	7	4.06	0.733
12) 대학생활	193	8	3.99	0.743
7) 자녀의 일을 스스로 해결	194	9	3.98	0.808
19) 친구들과의 우정	193	10	3.98	0.684
11) 깊이있는 독서	194	11	3.95	0.806
15) 취업 실패(실업자의 생활)	193	12	3.92	1.082
20) 이성교제(미팅, 연애, 실연)	192	13	3.87	0.785
22) 여행	192	14	3.86	0.872
9) 학업에 대한 몰두와 성취	194	15	3.84	0.755
21) 현실과 이상과의 부조화	193	16	3.73	0.849
2) 부모와의 갈등	194	17	3.61	0.992
13) 아르바이트	193	18	3.54	0.889
10) 학업에서의 실패(F학점, 입시 실패 등)	194	19	3.52	0.972
18) 신앙생활	193	20	3.30	1.066
8) 다이어트, 성형 등 외모에 대한 관심	193	21	3.29	0.853
17) 선생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	193	22	3.08	1.040

2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 22개 모두 20대의 발달과업으로 추출되었다. 20대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취업, 결혼, 출산 등 이 시기의 생활주기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8. 30대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5를 보면, 3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 는 22개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2) 결혼, 3) 안정된 가정 유지, 10) 자녀 양육, 7) 출산, 1) 부모로부터의 독립, 9) 일과 가정의 두가지 책임, 6) 배우자 가족에 대한 적응, 19) 경제적 안정 또는 불안정, 21) 자신의 승진, 실직, 4) 부부간의 갈등” 등 10개

표 15. 3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2) 결혼	192	1	4.50	0.709
3) 안정된 가정 유지	193	2	4.47	0.638
10) 자녀 양육	192	3	4.46	0.662
7) 출산	193	4	4.39	0.685
1) 부모로부터의 독립	191	5	4.27	0.772
9) 일과 가정의 두가지 책임	193	6	4.25	0.722
6) 배우자 가족에 대한 적응	192	7	4.15	0.711
19) 경제적 안정 또는 불안정	192	8	4.13	0.805
21) 자신의 승진, 실직	193	9	4.07	0.746
4) 부부간의 갈등	192	10	4.04	1.063
12) 자녀의 취학	193	11	3.97	0.714
20) 배우자의 승진, 실직	193	12	3.96	0.759
5) 이혼	192	13	3.88	1.429
11) 자녀와의 갈등	192	14	3.84	1.058
14) 불임	191	15	3.81	1.204
8) 가사노동	192	16	3.78	0.770
16) 조부모, 부모의 죽음	193	17	3.77	1.062
18) 타인과의 비교, 경쟁, 패배	191	18	3.59	0.913
22)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192	19	3.57	0.929
17) 이성교제(미팅, 연애, 실연)	193	20	3.44	0.956
13) 결혼적령기를 놓치다	193	21	3.37	1.048
15) 남아선호사상	192	22	2.71	1.152

가 추출되었다. 3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의 항목은 조사에 제시된 22개가 모두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10개나 중요한 과업으로 추출되어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중요한 발달과업의 수가 많다. 또한 그 내용도 긍정적인 정서경험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경험도 포함되어 있어, 이 시기의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9. 40대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6을 보면, 4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21개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3) 안정된 가정, 원만한 부부관계, 2)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존경받음, 1) 가족 부양, 17) 경제적 안정 또는 불안정, 8) 자녀

표 16. 4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3) 안정된 가정, 원만한 부부관계	191	1	4.57	0.619
2)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존경받음	191	2	4.44	0.685
1) 가족 부양	191	3	4.42	0.643
17) 경제적 안정 또는 불안정	190	4	4.28	0.798
8) 자녀 교육	191	5	4.25	0.680
9) 자녀의 성장과 성취	191	6	4.21	0.687
13) 건강의 적신호, 신체적 능력의 퇴화, 노화	191	7	4.16	0.988
15) 가정과 사회에서의 중요 위치를 차지함	190	8	4.15	0.692
16) 사회적 지위 획득	191	9	4.04	0.731
11) 갑작스런 해고, 실직	191	10	4.01	1.227
20) 부모의 죽음	191	11	4.01	0.971
4) 부부간의 갈등	190	12	3.94	1.116
12) 갱년기, 폐경기	189	13	3.93	1.013
5) 이혼	189	14	3.92	1.366
14) 대인관계의 확장	190	15	3.87	0.828
19)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191	16	3.85	0.964
18) 취미, 여가활동	191	17	3.84	0.801
10) 가족간의 불신	190	18	3.84	1.264
7)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191	19	3.83	0.810
6)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	190	20	3.72	0.899
21) 다른 학부모들과의 만남	191	21	3.31	0.818

교육, 9) 자녀의 성장과 성취, 13) 건강의 적신호, 신체적 능력의 퇴화, 노화, 15) 가정과 사회에서의 중요 위치를 차지함, 16) 사회적 지위 획득, 11) 갑작스런 해고, 실직, 20) 부모의 죽음” 등 11개가 추출되었다. 4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의 항목은 조사에 제시된 21개가 모두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11개나 중요한 과업으로 추출되어 모든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의 수가 가장 많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다.

10. 50대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7을 보면, 5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 22개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6) 배우자의 질병 또는 죽음, 1)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 5) 건강 악화, 12) 새로운 가족맞이(며느리, 사위), 22)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21) 직업에서의 성공, 13) 자녀의 독립, 16) 자녀의 성공, 성취, 14) 손자, 손녀의 탄생(할아버지, 할머니 되기), 17) 은퇴, 강요된 은퇴” 등 10개가 추출되었다. 5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의 항목은 조사에 제시된 22개가 모두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10개나 중요한 과업으로 추출되어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중요한 발달과업의 수가 많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모두 새로운 구성원을 얻게 되면서 긍정인 정서적 경험과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동시에 해 나가는 시기로

표 17. 5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6) 배우자의 질병 또는 죽음	189	1	4.36	1.090
1)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	190	2	4.35	0.648
5) 건강 악화	190	3	4.31	0.987
12) 새로운 가족맞이(며느리, 사위)	189	4	4.18	0.729
22)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186	5	4.10	1.000
21) 직업에서의 성공	188	6	4.09	0.692
13) 자녀의 독립	189	7	4.04	0.784
16) 자녀의 성공, 성취	188	8	4.03	0.780
14) 손자, 손녀의 탄생(할아버지, 할머니되기)	189	9	4.02	0.815
17) 은퇴, 강요된 은퇴	189	10	4.00	0.957
9) 부모님의 질병 또는 죽음	189	11	3.98	0.976
18) 취미, 여가활동	189	12	3.95	0.739
4) 갱년기, 폐경기	190	13	3.88	0.976
2) 이혼	190	14	3.87	1.245
7) 동료의 과로사	189	15	3.86	1.006
8) 배우자의 퇴직	189	16	3.86	1.029
15) 자녀와의 단절	189	17	3.85	1.176
19) 친구나 주변인의 죽음	189	18	3.82	0.911
3) 권태기	190	19	3.78	1.036
20) 동창회 등 친구관계	188	20	3.73	0.727
11) 사회봉사	189	21	3.70	0.817
10) 사회변화에 대한 부적응	189	22	3.65	0.890

볼 수 있다.

11. 60대 이후 정서적 발달과업 항목의 우선 순위

표 18을 보면, 60대 이후의 정서적 발달과업으로는 21개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중요한 것(4점 이상)으로는 “1) 화목한 가정, 4) 배우

자의 죽음, 18) 건강 악화, 20) 삶의 정리, 14) 경제적 여건, 19)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16) 취미, 여가생활, 3) 가족들의 무관심, 15) 퇴물 취급받는 경험” 등 9개가 추출되었다. 60대의 정서적 발달과업의 항목은 조사에 제시된 21개가 모두 포함되었고, 9개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내용을 보면, 60대 이후는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 경

표 18. 60대 이후의 정서적 발달과업

문항번호 및 발달과업 항목	사례수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화목한 가정	188	1	4.59	0.618
4) 배우자의 죽음	189	2	4.45	0.970
18) 건강 악화	189	3	4.32	0.943
20) 삶의 정리	189	4	4.30	0.921
14) 경제적 여건	189	5	4.29	0.731
19)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187	6	4.14	1.012
16) 취미, 여가생활	189	7	4.10	0.708
3) 가족들의 무관심	187	8	4.07	1.093
15) 퇴물 취급받는 경험	189	9	4.02	1.091
12) 손자, 손녀의 탄생	189	10	3.99	0.740
5) 친구의 죽음	189	11	3.99	0.948
8) 자녀의 결혼실패	189	12	3.92	1.028
21) 동창회 등 친구관계	185	13	3.86	0.772
17) 은퇴, 강요된 은퇴	189	14	3.84	0.928
10) 자녀들의 불효	188	15	3.84	1.079
2) 황혼이혼	188	16	3.82	1.256
13) 손자, 손녀의 육아	188	17	3.82	0.778
7) 자녀의 독립	189	18	3.82	0.825
6) 사회봉사	189	19	3.80	0.876
9) 자녀의 승진	189	20	3.70	0.771
11)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자녀	189	21	3.69	0.958

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정서의 분화, 정서의 표현,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서의 원인에 대한 이해, 정서조절 등 정서와 관련된 발달은 생애 초기에 집중되고, 이후 시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서와 정서활용 능력을 정교화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적 발달과업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각 연령시기의 중요한 정서적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각 연령시기에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고, 그 내용을 수합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정서경험을 각 문항으로 제시하여, 일반인들은 각 문항이 해당 연령시기의 정서경험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그 중 평균이 4점(‘중요하다’) 이상인 것을 발달과업으로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정서영역 발달과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서발달에 중요한 경험들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와 개인의 발달적 변화로 크게 나뉘고,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는 또 크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황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경험, 개인의 변화와 관련된 경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이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경험의 영역이다. 각 발달시기에 따라 각 영역의 경험 내용에서도 변화가 있고, 어느 영역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경험을 보면, 유치원 이전과 유치원 시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와 밀접히 관련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나 교우와의 관계 형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고등학교 시기에 와서는 친구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된다. 20대가 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모두 가족에게 집중되고, 특히 결혼, 출산, 양육이 집중되는 30대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이것이 거의 대부분 가족에 집중된다. 가족의 중요성은 50대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60대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별이 중요한 경험으로 변화한다. 자신의 변화와 관련된 경험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장, 사춘기, 갱년기, 건강, 죽음 등 연령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은 주로 사회적 성취와 관련되는데, 유치원 시기에는 단체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예회, 발표회, 수업시간 발표 등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해 보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학업과 관련된 성취가 중요한 경험이다. 20대 이후에는 일과 관련된 경험으로 주로 경제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입사, 승진, 실직, 은퇴 등이 그 예이고, 경제적 안정이나 위기 등도 30대 이후 중요한 경험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밝힌 정서적 발달과

업이 Havighurst(1953)의 발달과업과 김종서 등 (1982)이 밝힌 정서적 발달과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Havighurst의 발달과업과 김종서 등의 발달과업은 전문가들에 의해 추출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발달과정에 있어 문화적 보편성과 시간적 보편성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시대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발달과업들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 학업과 관련된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이 상당히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업과 관련된 경험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만, Havighurst의 정서적 발달과업에는 어느 시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종서 등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공부하는 태도 기르기’가 포함되어 있을 뿐인데,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서부터 ‘주어진 과제를 성취한다’는 학업관련 경험이 포함되었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에 몰두하고 성취한다’를 포함하여 4개의 발달과업이 추출될 만큼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꾸준히 높았다. 이것은 능력중심 사회에서 학력이 중시되면서 학업관련 경쟁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Havighurst의 발달과업에서는 아동기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김종서 등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다음 단계인 청년전기에서 시작되고, 이 연구에서는 20대의 발달과

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가 서양에 비해 더 의존적이라는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면서,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오랫동안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현상이 개념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 연구에서는 발달과업에 긍정적인 경험들이 주로 포함되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수집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경험만이 정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경험도 정서발달을 촉진한다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의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서발달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정서발달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암묵지를 알아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 발달과업을 추출하거나 검증했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탐색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 연구를 위해 선정한 연구대상의 대표성의 문제를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발달과업을 추출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에서 표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그 대

표성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생각하는 발달과업이 보편적인 발달과업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발달과업이 보편적인 발달과업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응답자가 속해 있는 연령의 발달과업을 응답하는 것과 이미 과거에 지나왔거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기의 발달과업을 추정하는 것에서는 지각의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발달과업을 발달과업의 최종 목록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보다 다양한 집단을 통해 검증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밝힌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지각 차이, 각 연령집단의 구성원들의 발달과업 지각 내용, 각 연령대별 발달과업 지각의 차이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평균적으로 ‘중요하다’ 이상에 응답한 것들을 각 연령의 발달과업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연구자의 임의적 선택으로 이 항목만이 발달과업 목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느 발달과업 항목까지를 그 시기의 발달과업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찾지 못하여, 4점 이상의 발달과업만이 아니라 모든 항목을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발달과업 목록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발달과업을 나열식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발달과업의 공통점이나 행동의 영역 등을 고려하여 요약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발달과업의 내용은 정서발달 이론의 구인으로 요약해 볼

수도 있고 통계적인 방법으로도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집단을 통해 이 연구에서 밝힌 발달과업을 정교한 다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민희, 민경환 (2004).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
- 김중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 (1982). 한국에서의 평생교육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논총*, 82, 173-1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혜리 (2000). 어린 아동의 실제 정서와 표면 정서의 이해: 아동의 마음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9.
- 유경, 민경환 (2000). 아동의 혼합 정서 이해의 발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91-104.
- 유경, 민경환 (2003).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이해의 발달: 정서 원인과 정서 조절에 대한 이해. *심리과학*, 12(1), 13-29.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 이성진 (2005). *한국인의 성장·발달: 30년 종단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허수경, 이경님 (1996). 인지양식 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7(2), 221-233.
- Boone, R. T., & Cunningham, J. G. (1998).

- Children's decoding of emotion in expressive body movement: The development of cue attun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07-1016.
- Brown, J. R., & Dunn, J. (1996). Continuities in emotion understanding from three to six years. *Child Development*, 67, 789-802.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Gnepp, J., & Klayman, J. (1992). Recognition of uncertainty in emotional inferences: Reasoning about emotionally equivocal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45-158.
- Havighurst, R. J. (1953).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McKay.
- Harris, P. (1989). *Children and emotion*. Blackwell: Oxford.
- Izard, C. E. (1971). *The face of emo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 Izard, C. E. (1982).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zard, C. E. (1993). Four systems for emotions activati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100, 68-90.
- Labouvie-Vief, G., DeVoe, M., & Bulka, D. (1989). Speaking about feelings: Conceptions of emotion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4, 425-437.
- Shaffer, D. R. (2002).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6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1 차원고접수 : 2008. 06. 29.

수정원고접수 : 2008. 09. 08.

최종게재결정 : 2008. 09. 16.

A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Tasks in Korean

Hwang, Mae-hya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emotional developmental tasks in Korean people of different age levels and to thereby provide teachers, parents, researchers, and other helping professionals with tentative guidelines as regards developmental tasks in Koreans.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ree steps were taken. Firstly, the items to be examined in emotional developmental tasks were collected from 58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occupational groups. Secondly, the importance of each item was rated by 194 Korean adults. Thirdly, each item within the 11 age-appropriate categories was analyzed and prioritized as a standard guideline. The main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that it suggests to us a possible shortlist of important emotional experiences undergone by Korean people through life long developmental stages. In total, 314 emotionally critical experiences were identified across all the age groups. The emotional developmental tasks established by this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developmental tasks suggested by Havighurst and Kim et al.

Key words : *emo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al tasks, developmental stage, life-long development, Korea*